

주홍글씨

하 창 식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얼마 전, 내신 등급제의 도입으로 말미암은 고교 1년생들의 촛불시위 뉴스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다.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대학입학시험 제도로 인한 불안감에서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한다. 장관 바뀔 때 마다, 정권 바뀔 때 마다 달라지는 대입 제도, 정말 이제 넌더리가 날 지경이다. 1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제도가 정착될 날은 과연 오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제도가 바뀔 때 마다 죽어나는 것은 이 땅의 청소년들이라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이 땅의 교육제도를 볼 때 마다 항상 소설 <주홍글씨>를 떠올린다.

1850년에 간행된 Nathaniel Hawthorne의 장편 소설 <주홍 글씨>는 주지하다시피, 17세기 청교도 식민지 미국 보스턴에서 일어난 간통사건을 주제로 한 고전이다. 죄지은 자의 고독한 심리를 묘사한 19세기 미국문학의 걸작으로 알려진 작품이다. 영국에서 건너 와서 새로운 정부와의 관계로 딸을 낳고 청교도적 계율이 지배되는 사회에서 그로 말미암은 간통죄로 치욕의 주홍글씨 A(adultery)를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야 했던 한 여인 <헤스터 프린>과 그 딸<펄>, 정부였던 목사<딤스데일>, 그리고 뒤늦게 나타난 의사인 옛 남편<틸링워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바탕으로 구성된 불후의 명작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어떤 제도가 도입되든, 시대에 따라 교육정책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만든 정책들일 것이니, 우리 같은 보통사람들이 왈가왈부 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식교육제도가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우리나라 교육제도 중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고교 2학년만 되면 어린 청소년들에게 강제로, <인문> 계열이나 <자연> 계열이나를 선택해서 진학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해서 선택된 전공은 <주홍글씨>가 되어 평생을 함께 하게 된다. 대학입시에서 문과/이과 간의 교차지원은 원칙적으로 봉쇄되고 대학에서조차도 제도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인문/자연 계열간의 전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고등학생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대학의 수많은 전공 중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법대다 의대다 하는 큰 틀의 대학 차원이 아니라, 한 단과대학내에서 학과별 전공 특성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리라 생각한다. 더구나, 이공계통에서 아주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학과별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여간 쉬운 게 아니다. 사실 이 나라의 모든 학부모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고분자공학과와 화학공학과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무기재료와 금속재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도 1 %도 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요즘 등장한 <나노과학기술> 등의 신조어를 이해하는 일반인들은 인구의 0.1 %도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물며 고등학교 1학년인 어린 청소년들이야 더욱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어린 학생들에게 어른들이 가진 선입견과 그때그때마다의 시대상황에 맞추어 강제로 선택된 전공에 의해 평생을 갈등 속에 살아갈 젊은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본다. 이런 학생들에게 강요된 전공은 평생 자신의 <주홍글씨>가 되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해 버린다. 지난해 필자가 체류했던 미국의 한 주립대학의 예를 들면, 미국의 청소년들은 이런 점에서 전공 선택이 아주 자유로운 것으로 보인다. 심리학을 전공한 학생이나 생물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함께 모여 약학을 전공하고, 법대를 나온 친구가 생물학과 석사과정을 밟고, 화학을 전공한 학생이 음악학 박사과정을 밟는 예들을 많이 보았다. 한국의 교육제도 하에선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물론, 학부제의 도입과, 전과 기회 확대, 복수전공제 도입 등 대학 나름대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들의 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대학의 온갖 교육제도들

이 청소년들에게 <주홍글씨>와 같은 족쇄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게 문제이다. 우리나라 실정에서 공학도가 고고학자가 되고, 사회학도가 고분자공학자가 되기가 어디 가능한 일인가? 학부제의 도입도 이른 바 인기학과 비인기학과간의 갈등으로 인해 그 본질이 퇴색되고 있고, 복수전공제 또한, 전공에 따른 지식확산 때문이 아니라, 취업전망이 밝은 일부 전공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심각하다. 그런가 하면, 시대에 따른 인기 전공의 부침은 또 어떤가? 70년대는 경제개발계획으로 인해 공학이 붐을 일으켰지만, 30년이 지난 오늘날은 어떤가? 박사학위를 받고도 의과대학이나 한의과대학으로 새로 진학하는 현실이다. 이런 저런 이 땅의 얽히고설킨 교육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은 과연 없는 것일까? 한번의 선택으로 평생의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야하는 한국의 소설 같은 현실은 비단 고등학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다.

서울의 강남 아파트 값이 하루에 몇 억씩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뉴스들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같은 시골사람들의 마음은 참으로 착잡하다. 부자가 더욱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가난이란 <주홍글씨>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니던가? 지방대 출신 학생들이나 지방대 교수들은 지방대라는 <주홍글씨> 때문에 받아 온 멍에는 또 얼마나 큰가?

다시 <주홍글씨>로 돌아가자. <주홍글씨>를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야만 했던 주인공 <헤스터 프린>의 삶은 결코 불행한 것만은 아닌 듯하다. <헤스터 프린>의 딸인 <펠>은 어머니의 <주홍글씨>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 세기의 고전은 어느 정도 해피엔딩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가 가슴에 달아야 할 <주홍글씨>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아들 딸, 나의 후배, 나의 제자들은 해피엔딩이 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홍글씨>의 멍에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수요자들에 의한, 수요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보편화된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 대학선발권을 대학에 넘기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하도록 되어있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대학입학 이후로 넘김으로써, 이 땅의 청소년들이 상아탑 아래에서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인문학도나 인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과학기술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밝은 우리사회를 위한 최상의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공급자인 정책당국이 앞장서서 무슨 제도를 만들어 강요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수요자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하는 점에 더욱 정책의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이것은 결코 집단이기주의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정책당국자의 입안이 언제나 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한 건 주의, 전시행정 주의 같은 불명예스런 지적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다. 늘 회자되어 온 말이지만, 장관만 바뀌면 예외 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정책 때문에 항상 수요자들만 애꿎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정책도 그렇고 과학기술정책도 그렇다. 언제쯤 이 나라의 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될지 안타깝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다수의 수요자들이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현실화가 그림자.

속명처럼 가슴에 <주홍글씨>를 단 채, 해마다 새롭게 선보이는 온갖 정책들을 먼 산 너머로 바라보아야만 하는 과학기술자들은 없을까? 그냥 부질없는 생각을 해 본다.